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두 번 크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죽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 다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화냄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된 것을 알고 화를 내며 죽기를 구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박녕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보다 크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적대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재앙과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니느웨는 앗수르의 큰 성읍인데, 앗수르 사람들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잔인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박녕쿨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2절) 그런데 그 은혜의 대상이 자신과 자신 민족,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옳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알았지만 그 넓이가 좁았습니다. 편협함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당연히 내 사랑의 대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보다 넓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더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내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받고 재앙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3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 뜻에 앞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성내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6~8절)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요나를 위해 수많은 것을 예비하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알려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서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요나 같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과 다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보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23(월)	10/24(화)	10/25(수)	10/26(목)	10/27(금)	10/28(토)	10/29(주일)
막7-9	막10-11	막12-14	막15-16, 눅1	눅2-3	눅4-5	눅6-7

QT

이번 주 QT 말씀

10/23(월)	10/24(화)	10/25(수)	10/26(목)	10/27(금)	10/28(토)	10/29(주일)
엡 4:7-16	엡 4:17-24	엡 4:25-32	엡 5:1-14	엡 5:15-21	엡 5:22-33	엡 6:1-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크고 넓다는 것을 내 삶에 고백하고 적용해 보세요.
4.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